美-이, '트럼프 종전안' 합의…2주년 앞둔 가자전쟁 중대기로

하마스 동의 여부가 관건…美-이, 하마스 거부시 고강도 조치 예고

일각선 "하마스 '무장해제·이 단계적 철수' 수용 어려워" 회의론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어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공개한 '가자 평화 구상'에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합의하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 전쟁이 중대 기로를 맞은 모습이다.

또 다른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까지 여기에 동의한다면 가자 전쟁 2주년(10월7일)을 앞둔 시점에서 전쟁이 중단되고 인질 석방과 가자지구 통치체제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마스가 이번 종전안을 거부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이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중동 정세가 한층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공개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화 구상에서 "가자지구는 테러 없는 지역이 되고,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 재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상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를 수용할 경우 전쟁은 즉시 중단되며 모든 인질은 72시간 이내에 석방된다.

인질 석방 후 평화적 공존과 무기폐기를 약속하는 하마스 구성원은 사면해주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스라엘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후 가자지구는 임시 과도 통치기구의 통제를 받게 된다.

팔레스타인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일상적 행정 업무를 맡게 되며, 이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새로운 국제관리기구인 평화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구상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이집트, 터키, 파키스탄 등 주요 아랍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회견에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지지한다"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하마스는 무장해제될 것이고 가자는 비무장화될 것"이라며 "가자지구에는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운영하지 않는 평화로운 민간 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하마스가 이번 평화 구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일단 수락한 후 사실상 합의를 어길 경우 "이스라엘은 스스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며 하마스 제거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마스가 종전안을 거부한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있어 더욱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 지원 방침을 시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인 평화 구상을 내놨지만, 최대 변수는 하마스의 동의 여부다.

하마스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하마스 간부인 마흐무드 마르다위는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 문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무장 해제' 등의 요구 조건을 하마스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제안에는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고, 이스라엘 군의 전면 철수가 아닌 그보다 낮은 수준의 철수를 받아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며 "하마스가 이번 요구를 수용할 개연성이 낮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가자 종전안을 발판으로 '중동 평화'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가자 전쟁을 끝낼 방안을 논의했지만, 그것은 '중동 평화'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수년, 수십 년, 심지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죽음과 파괴를 종식시키고, 지역 전체를 위한 새로운 안보·평화·번영의 장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잘 맺은 나라들은 번영했고 이스라엘 파괴나 멸망에 자원을 집중한 나라들은 쇠해졌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시리아부터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다른 국가 사람들과 공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전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관리기구인 '평화위원회' 의장을 직접 맡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의장을 맡은 배경에 대해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다"라며 "나는 매우 바쁘지만, 아랍 세계 정상들과 이스라엘, 관련자 모두가 나에게 이것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피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을 향한 개인적 열망과 떼놓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재집권 7개월 만에 본인이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밝혀왔다. /연합뉴스

캄보디아서 한국인 운영 사기작업장 적발

"이례적 사건" 피해자 한국인 30명 추방

중국계 범죄 조직 등의 대규모 사기 작업장이 성행하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다른 한국인 등 피해자 수십 명을 데리고 사기 작업장을 운영하다가 붙잡혔다.

또 중국인 등 일당이 한국인을 수도 프놈펜 한복판에서 납치, 고문했다가 검거되는 등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관련 범죄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크메르타임스·프놈펜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 25일 20-40대 한국인 남성 3명을 온라인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당국은 지난 15일 프놈펜의 한 아파트에 있는 온라인 사기 작업장을 단속, 이들을 포함한 용의자 48명을 체포했다.

이후 수사 결과 기소된 한국인 3명이 주범이고 나머지 45명은 이들에 의해 사기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여성 5명을 포함한 한국인 30명, 여성 5명을 포함한 캄보디아인 13명, 네팔인 남성 1명, 방글라데시인 남성 1명이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 중 한국인 등 외국인 피해자들을 해외 추방하고 사기에 사용된 PC 60대, 휴대전화 3대, 여권 35매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이 지배적인 현지 상황에서 한국인이 주범인 사기 작업장이 적발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크메르타임스는 전했다.

/연합뉴스

日 "이시바 방한은 셔틀외교 실천…협력 논의할 중요 기회"

일본 정부는 30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 방한과 관련해 "일한 정부 간에 긴밀히 의사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고려해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오늘부터 10월1일까지 일정으로 한국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에 맞춰 진행되는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정부 간 협력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 진전 등에 대해 논의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출국해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NHK는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이시바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다음 정권에 전해주려 한다고 해설했다.

지지통신은 "(양국 정상이)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사회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 문서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챗GPT로 상품 구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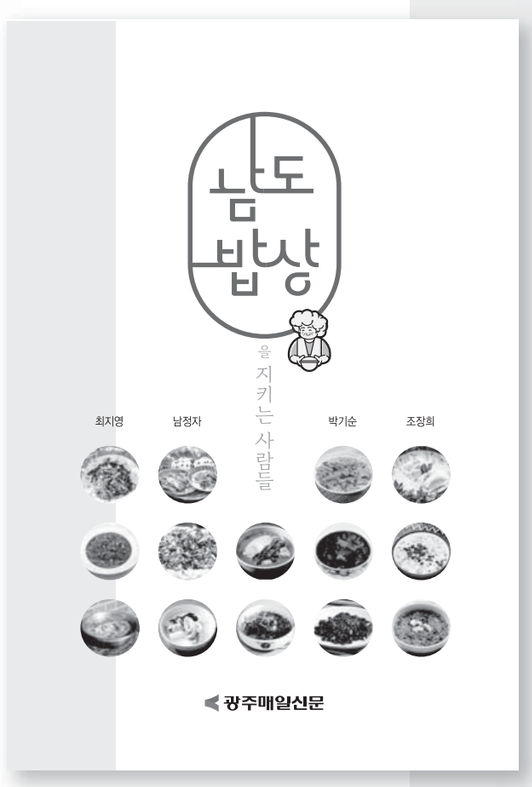
오픈AI '즉시 결제' 기능 출시

오픈AI는 챗GPT를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즉시 결제'(Instant Checkout)를 출시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기능은 우선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엣시(Etsy)와 캐나다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Shopify)에서 실행된다.

오픈AI는 이용자들이 미국 내 엣시 판매자들이 올려놓은 단일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곧 100만명이 넘는 쇼피파이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시 결제' 기능은 유료 구독 서비스인 챗GPT 플러스뿐만 아니라 챗GPT 프로, 무료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 : 예금주 - (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